

금주에 만난 사람

“남성다움의 틀 깨져야 동화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그림책〉 모임의 ‘소세지 아빠’ 김영욱 씨

아빠들이 그림책을 만든다. 아시아문화 교류연구소(소장 강우현)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아버지가 만드는 그림책〉 모임이 바로 그것.

10월 출간을 앞두고 10여 명의 아빠들은 요즘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네살박이 딸을 둔 김영욱(36) 씨도 이 아빠들 중의 한 사람.

고정관념의 틀 벗어나기에서 출발

“아내가 〈아버지가 만드는 그림책 강좌〉를 들어보는 게 어떨겠느냐고 권했을 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점차 빠져들다 보니까 무심한 아빠였던 내가 새로운 눈을 뜬 느낌이에요”

그의 아내 유덕운(32) 씨의 권유로 시작한 ‘그림책 그리기’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김영욱 씨는 기억한다. 이 강좌의 강사였던 강우현 씨가 수강생 아빠들에게 내놓은 첫번째, 숙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였다. 그 훈련과정은 낙서처럼 아무렇게나 그려진 그림, 일직선 등 의미없는 선과 공간들을 채워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완성시키는 작업으로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수가 없었어요. 바쁜 시간 쪼개서 내가 뛰고 있는 건가 후회도 됐구요.”

그러나 김영욱 씨는 점차 강우현 씨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됐다. 그것은 ‘어른’ 식으로 생각하는 틀을 깨고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운동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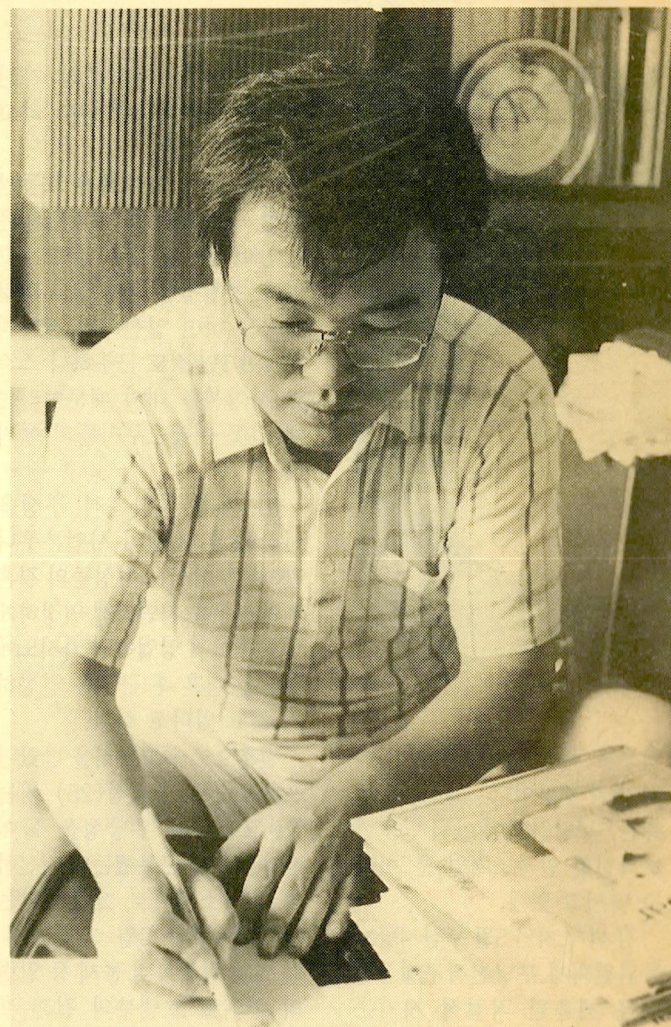
“하나의 사물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다양한 면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어른들에게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천진무구한 세계를 안다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만 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흔히 과묵함이나 의젓함, 독립심만을 강조해서 대인관계조차 딱딱해지기 쉬운 남자로서의 고정관념을 벗고 자기 본래의 정서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고 김영욱 씨는 말한다.

영양많은 무공해소세지 만들고파

그는 얼마 전 소세지를 만드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학을 전공했던 그의 첫 직장은 소세지 회사. 얼마간 일하다 보니 소세지에 방부제며 인산염 등의 유해물질(비록 소량일지라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의 일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월급쟁이를 포기한 김영욱 씨는 영양가 많은 무공해 소세지를 자신이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게 됐다. 돈은 조금 못 벌더라도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단다.

그래서 그는 ‘그림동화 모임’에서도 ‘소세지 아빠’로 통한다. 그의 그림동화에도 소세지가 등장한다. 아빠소세지, 엄마소세지, 아기소세지... 등 소세지 일가족이 등장해 이야기를



꾸려나간다. 그의 딸 종인이라도 친구들과 함께 소세지로 등장한다. 종인이 주인공이 돼 어른 편의대로만 만들어진 세상을 하나씩 고쳐 나간다는 이야기가 그가 이번에 출간할 작품의 줄거리다.

“종인이 엄마와 외출을 한번 하려고 하면 너무 가파른 버스 계단과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높게 달린 표지판, 간판들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엄마 손을 놓고는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로 시작

해요. 그래서 종인과 그의 친구들은 불편한 점들을 조금씩 고쳐나갑니다. 화장실 표지판은 빨강, 파랑 나무잎으로 대신하고, 번기는 갈대기로 만들어 낮게 고정시키지요. 또 육교 한 옆을 미끄럼틀로 만들어 즐겁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가 존중되는 사회

이 그림책에서 김영욱 씨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눈높이의 민주화’. 그가 아내와 함께 동화의 주제를 잡으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눈 높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사람은 유치원에 다니는 그의 딸 종인이었다.

집에 오면 신문만 읽는 아빠, 책을 읽거나 시장보러 가는 일에 파묻힌 엄마에게 종인이는 늘 불평하듯 투덜거렸다. “종인이는 유치원에서 ‘사랑반’인데 아빠는 신문반, 엄마는 시장반이야”라고.

그래서 김영욱 씨의 이야기는 종인이의 유치원 사랑반 생활로부터 시작된다.

“유치원에서는 모든 것이 아이의 눈높이로 맞춰져 있는데 문 밖만 나오면 어른들은 모두 자기위주로 살고 있을 뿐 이 사회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불편한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추상성’은 아빠들의 고질병

30대 중반까지 바깥 세계에서 돈벌어 오는 가장으로 살아온 ‘아빠’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 제일 처음 부딪친 문제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리는 그림책 강좌에 모인 아빠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거나 교훈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삶과 죽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등 거창한 이야기로부터 하고 싶어하지요. 어떤 언어로 다가가야 아이들이 좋아할지 감이 전혀 안 잡혔어요. 그동안 내가 가정생활이나 아이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겠더군요.”

이때부터 그의 딸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졌다.

“예전엔 종인이를 단지 귀엽게 봤지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의 표정을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김영욱 씨를 어른의 틀, 바깥 세계의 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이들 중의 한 사람은 아내 유덕운 씨였다. 그는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 내내 같이 고민해 주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고, 내가 그려온 조각 그림들을 모아 자료집까지 만들어 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림을 전공했던 아내와 함께 인생을 등산에 비유한 주제를 가지고 ‘부부가 만든 그림책’을 꾸며볼 계획이다.

할머니·할아버지 돼서도 계속할 터

“그림책을 만드는 일은 소세지 사업 이외에 계속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집에 들어앉으면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인생의 경험이 쌓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더 깊은 이야기가 우러나오지 않겠어요?”

딸을 위한 아빠의 사랑으로 시작된 ‘동화 그리기’는 결국 그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고, 노후계획까지 세워 준 셈이다.

(박미라 기자)
(사진·박옥희 편집위원)